

나주시, 시민 건강지표 상승 지역 맞춤 보건정책 강화

건강행태·만성질환 관리 수준 분석 17개 영역 172가지 문항 면접 조사 아침 식사 52% 전국 평균 대비 높아 건강행태 개선 보건사업 확대 주력

나주시가 시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단위 건강정책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시민체감형 건강증

진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 수준 등을 분석해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 내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지난해 5월16일부터 7월13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895명(540가구)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고혈압, 당뇨병 등)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에 대해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7.4%로 전국 중앙값(18.9%)보다 낮았고 월간 음

주율도 10.8%로 전국 평균(12.6%)보다 낮게 조사됐다.

아침 식사 실천율은 52.5%로 전국 평균(47.5%)보다 높아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4%로 전국 평균(6.2%)보다 낮았으며 이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20.8%로 전국 평균(21.1%)보다 낮게 나타났다.

뇌졸중(중풍) 조기 증상 인지율은 78.3%로 전국 평균(59.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역시 71.2%로 전국 평균(49.7%)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윤병태나주시장은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1~18세까지 출생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대상

나주시는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한다.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빠짐없이 받으면 지원금 총액은 432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으로, 출생아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당 신청 시점엔 나주시에 주소 등

록 후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출생기본수당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양육 초기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부터 출산과 보육, 교육,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제5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개최

내일부터 나주읍성 문화재 일원 '조선시대 시전 거리' 재현 등

나주시는 4일부터 6일까지 금성관, 서성문을 비롯한 나주읍성 문화재 일원에서 '제5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나주목 봄나들이, 상춘(賞春)'을 주제로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 국방, 지리적 핵심 역할을 했던 나주목과 나주읍성 시전 거리를 재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 수문장 교대 의식과 삼색유산놀이, 한복패션쇼 등 전통문화 공연과 읍면동 시민노래자랑, 동·서부 줄다리기, 시민대동놀이 한마당 등 주민 참여 행사가 다

채롭게 진행된다.

축제장 일원에는 '조선시대 시전 거리'를 재현한다. 시전(市廛)은 고을이나 도시에 있던 상점가를 뜻하는데, 주로 오늘날 종로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조선시대 상설 시장을 가리킨다.

쌀·건어물·과일전, 읍성 주막 등 방문객의 허기를 달래줄 각종 먹거리와 더불어 조선 잡사 재담꾼, 보부상 등 저잣거리 인물들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캘리그래피아트, 도심 캠핑, 조선 게임 열전, 어린이 당근마켓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인근 한수제예선벚꽃축제도 함께 열려 봄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김용의 기자

빛가람시립도서관, '도서관 주간' 맞아 문화 행사 다채

내달 11일까지 운영

나주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오는 5월11일까지 그림책 연계 체험, 리딩푸드, 과학실험, 연극놀이 등 책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그림책 연계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열린다.

'그림책과 함께 과학 속으로', '우음이 팔짝팔짝! 그림책 놀이', '페이스리리 맘모스 빵만들기'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

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시립도서관 대 출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도서 연체자들이 책을 반납하고 다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 연체자 해제' 이벤트는 오는 8일부터 나주시립도서관과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해 과월호 잡지를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잡지 나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소방 직원들이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소방 제공**

나주소방, 산불 화재 예방 캠페인

나주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임야 및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면적이 넓고 농촌 지역이 많은 나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가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나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나주 관내 주요 등산로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 산불 예방 홍보물 및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 등산객, 시장 상인 등을 대

상으로는 산불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도 적극 유도했다.

신항식나주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경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반드시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문화재단 출범... 시민 문화복지 향상 '시동'

문화 서비스 확대 노력

나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한 '나주시문화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 출범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도시의원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립국악단의 터뻐기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흠여져있는 문화 거점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고 나주시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단 설립취지문에 따라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마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후원', '문화예술인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관리 지원', '문화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나주시문화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예술분야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

재단 사무실은 남외동에 위치한 '나주 근대역사기념관' (나주시 학생운동길 25) 1층에 들어섰다.

재단은 나주시 출연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지난 1월 창립총회를 거쳐 2월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김찬동 흥익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재단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화재단 설립은 나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